

선생님, 안녕하세요!

12월 30일, 하나고 개교 10주년을 맞아 국문신문부는 지난 10년간 학교가 이룬 것들, 그것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에 오래 재직하신 김태희 선생님의 노련한 시선과 올해부터 새롭게 가르치고 계신 김이정 선생님의 신선한 시각을 통해 하나고를 조명하는 인터뷰를 기획했다.



▲ 윤리교과 김이정 선생님



▲ 국어교과 김태희 선생님

◆기자: 두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본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나요?

김이정 선생님: 어릴 때부터 친구와 동생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학창 시절 친구들의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면서 내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잘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사를 꿈꾸기 시작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한 뒤 실제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김태희 선생님: 사실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도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자격증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처럼 알지 못할 어떤 힘에 의해 교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IMF구제금융 시절 생계를 위해 잠시 학원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 한마디에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적성에도 맞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른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또다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따고 교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IMF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던 셈이죠.

◆기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하나고와 다른 학교의 특별한 차이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김이정 선생님: 1년간 여러분과 수업하고 생활하면서 하나고를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학교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하나고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목표를 벤치마킹하지만 하나고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조별 발표와 수업 중 질문을 즐길 줄 알고, 토론을 하면서 상대의 근거에 찬사를 보내며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김태희 선생님: 처음 우리학교에 왔을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시가 좀 넘으니, 학교가 시끌벅적 온통 탄 세상이 되더라구요. 교실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장에서는 땀을 흘리

며 구호를 외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학교가 어떤 교육이 바람직하고 좋은지를 따지고 토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대학만 잘 보내는 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바람직한 교육, 우리가 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는 학교, 그래서 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늘 질문하게 만드는 학교, 저는 그래서 우리학교가 명문고라 생각합니다.

◆기자: 두 선생님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학문의 재미를 선사해주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김이정 선생님: 웃기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과 윤리가 우리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올드하고 지루한 학문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에 철학과 윤리와 사상 시간을 힘들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이야기 거리를 통해 웃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수업은 교육의 가장 핵심이지요. 저는 동서고금의 명문을 통해 제 생각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사유를 학생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편적인 삶의 정답은 없으며 각자만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서고금의 현인들의 글을 통해 영감을 주고 사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문학적 감성을 길러주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말랑말랑한 감성이 없이는 서로 공존하기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 딱딱해지잖아요.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그 공간이 정의로운 공간이어서라기보다는 따뜻한 공간,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성이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온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요.

◆기자: 앞으로의 하나고를 위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과 수록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들을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



코로나와 하나고에서의 1년

12월 24일,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로 보낸 날은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간의 모든 학습의 마침표를 찍은 기말고사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2020년의 지필 평가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쉽지 않은 날이었다.



(출처: 쿠키뉴스)

그 비극은 첫 번째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첫 등교는 6월 7일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역시 4월에서 6월 10일로, 상당히 미뤄져 있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첫 등교로부터 단 3일 만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고, 도

서실에서 열람할 수 있던 작년 시험지는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등 기존과 다른 변화 속에서 첫 번째 시험은 끝이 났다.

코로나 19가 비교적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되고,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중간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1학기 기말고사가 치러졌고, 다소 아쉬웠던 1학기는 끝이 났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던 코로나 19가 안정세를 타면서 1단계까지 격하되자 학생들은 1학기에 비해 더 많은 날을 학교와 기숙사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에 치러지게 된 2학기의 첫 시험은 여타 다른 시험들에 비해 시험공부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하기를 바랐던 많은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확진자 수는 끊임없이 증가해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1,000명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의도치 않게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 진도, 수행평가, 시험공부를 병행하게 되었고, 두 번의 시험일 조정의 혼란 속에서 4일을 등교하여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마침내 연말을 맞게 되었다.



(출처: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여러 변화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따른 학교 선생님, 그리고 기숙사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적응과 배려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2020년은 혼란과 변화를 향한 하나인들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해인 것 같다. 이후 2021년에 일어날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응하는 하나인들의 모습에 귀추가 주목된다.

11기 박현경 기자

달라진 2학기 기말고사와 올해를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2020년,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전과는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달라진 일상에도 조금씩 적응하려는 찰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를 예정대로 치루기가 어려워졌다. 1학년과 2학년이 동시에 등교하여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2개 학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2학년은 전과 비슷하게 오전 8시부터 1, 2, 3, 4교시 동안 시험을 봤고 1학년은 오후 2시부터 5, 6, 7교시 동안 시험을 보았다. 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실행되었다. 학년별로 식사 시간과 면학 공간을 분리했고 교과교실과 면학실, 생활관을 개방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분산되도록 했다. 학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했던 도서관은 이번 시험 기간에는 개방하지 않았다. 생활관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생활관 선생님들이 직접 체온을 측정하시고 일정한 시간마다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셨다. 처음으로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 1학년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에 치러 왔던

시험과 완전히 달라져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오히려 오전 시간에 잠을 깨는 등 컨디션을 조절하고 오후에 시험을 보는 편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0년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정말 많았고, 하나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쉬웠던 만큼 너무나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기뻐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2020년을 마무리해본다.

없이 사용 가능했던 도서관은 이번 시험 기간에는 개방하지 않았다. 생활관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생활관 선생님들이 직접 체온을 측정하시고 일정한 시간마다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셨다. 처음으로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 1학년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에 치러 왔던

11기 최시우 기자

카메라에 담긴 하나고의 아름다운 순간

하나고에서 일상을 보내는 하나인들만 진가를 안다는 숨은 포토존들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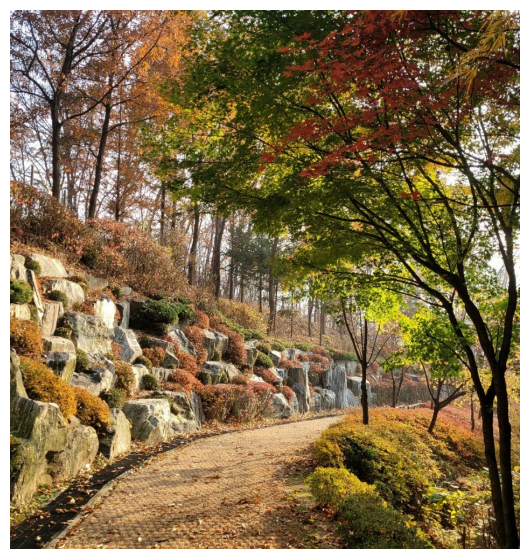
▲ 8월 (9기 유지연 학생 제공)
하나고에서 본 북한산 사진



▲ 9월 (11기 서채원 학생 제공)
9월 28일, 대부분이 집으로 간 귀가날의 기숙사에서 찍은 학교



▲ 10월 (11기 여성민 학생 제공)
진관사 야외수업 가는 길에 찍은 학교 외관



▲ 10월(11기 박승환 학생 제공)
기숙사 뒤 산책로에서 찍은 쌀쌀하고 평화로운 가을 아침



▲ 11월 (10기 박수경 학생 제공)
11월 7일 햇살마당에 찍은 가을 풍경 사진



▲ 11월 (11기 홍휘영 학생 제공)
11월 24일 햇살마당에 보름달이 설치되었을 때의 풍경

11기 박승환, 박유니아, 박은수, 이람윤 기자

2020년에 무슨 일이?

-월별로 모은 2020년의 이슈들



(출처: Estate Agent Today)

1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등장과 이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유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특이한 일들이 SNS로 시간을 때울 것을 찾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그 예로 ‘달고나 커피’가 있었는데, 물과 커피, 설탕을 수천 번 저어 만드는 커피는 팔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에 사람들에게 유행했다. 이후 각종 브랜드, 카페에서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하면서 그 유행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래퍼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가 연예인들을 비롯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었다. 반면 좋지 않았던 소식도 있었는데, NBA(미국프로농구)의 전설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자녀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2월 올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중 하나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이다. ‘기생충’은 이전까지 칸 영화제, 골든글로브 시상식 등에서 수상을 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그리고 비영여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힘을 보여주었다. 해외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었던 호주의 산불이 수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2월 13일이 되어서야 진화가 되었다. 호주 전체 숲의 14%(약 18만 6천 km²)가 소실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면적(약 22만 km²)의 85%이다.

3월 사람들의 지루함을 채우기 위한 비디오 게임인 ‘동물의 숲’이 유행했는데,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가수 비의 노래인 ‘깡’이 재조명을 받으며 ‘1일 1깡’,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등이 유행이 되었다. 이외에도 가나의 장례 문화로 관을 들고 춤을 추는 문화가 있는데, 이 장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EDM 음악을 삽입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2차 창작이 유행했고 ‘관짝소년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사회적으로는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 조명되며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많은 말들이 있었다. 또한 애니메이션 ‘보롱보롱 보로로’의 캐릭터인 ‘루피’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사람들의 동심을 파괴하였다.

5월 연기되었던 KBO리그(한국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무관중, n% 관중 제한을 두며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찰 데릭 쇼빈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영상이 퍼지며 과잉진압, 인종차별 등의 논란이 커졌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으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0년 넘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종영이 되고, 조석의 웹툰 ‘마음의 소리’가 완결이 되었다. 이에 다른 곳에서 웃긴 상황, 황당한 상황 등을 보며 ‘개콘이 망한 이유’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7월 유튜브 ‘피지컬갤러리’의 프로그램 ‘가짜사나이’가 인기를 끌면서 ‘너 인성문제있어?’를 포함한 수많은 유행어가 생겨났다. 한반도에는 역대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마가 쏟아졌고, 나가기만 하면 비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EPL(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영원히 우승을 못할 줄 알았던 ‘리버풀’이 30

년만에 EPL 출범 첫 우승을 하며 축구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중 실종·사망하며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

8월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를 각색한 ‘아기공룡 둘리’가 재조명되어 사람들에게 동심 파괴와 더불어 유행이 되었다. ‘선 넘네’, ‘~~ 어서오고’, ‘~~맛 좀 볼래?’와 같은 유행어 또한 등장하였다. 또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인들이 시청자들에게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많은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인이 시청자들에 사과를 하며 활동을 중단했고, 이 사건으로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블랙팬서’의 주연 배우 채드윅 보스만이 대장암으로 사망하며 전세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9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Dynamite’로 한국 최초, 아시아에서는 57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또 한번 한국을 알렸다. 연예계에서는 블랙비의 박경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10월 앞서 7월에 유행이 되었던 프로그램 ‘가짜사나이’가 2기를 진행하면서 모집부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가학성 논란을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방영을 중단하였다. 또한 언론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 이야기가 많았던 이견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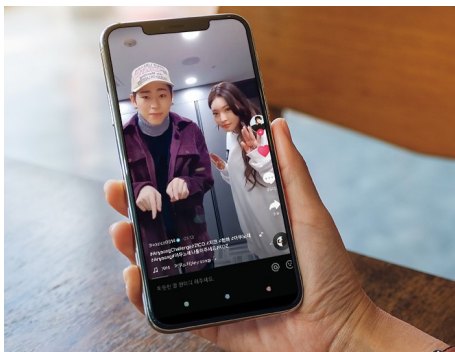
11월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겨우 진행된 KBO리그(한국 프로야구)가 NC 다이노스의 통합 우승과 함께 막을 내렸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모기업인 NC 다이노스는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창단 9년 만에 우승하며 주목이 되었다. 방송 프로그램 ‘쇼미더머니’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연곡 중 하나인 ‘VVS’가 몇 달간 지속되었던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제치고 음원차트 1위를 달성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진행되었는데, 트럼프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이 당선되며 화제가 되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망과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은 그들의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충격을 주었다.

12월 다사다난했던 2021 수능이 연기 끝에 12월 3일 시행되며 사상 첫 12월 수능을 맞이하였다. 수험생들에게는 타 년도에 비해 긴장이 되었을 2021수능이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비판이 몰아쳤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 인터넷 방송인들과 유튜버들의 모습은 주변 주민들과 경찰들에게 피해를 주며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1년간 세계 최고의 골에 시상하는 ‘FIFA 푸스카스 상’을 수상하며 다시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힘들었던 2020년은 우리를 웃게 해주는 여러 일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삶으로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수많은 인터넷 유행어로 인터넷 시장은 더 확대되고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유행이 생겨났다. 비록 눈 깜짝할 새 지난 1년이지만 공감했던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보자. 2020년보다 조금은 나아질 2021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틱톡이 쏘아올린 작은 공:숏폼 콘텐츠

2019년 여름, 포브스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아직 강자가 없다. 물론 넷플릭스, 아마존 TV 등을 모바일로 볼 수 있지만, TV나 노트북 화면에 최적화됐다. 모바일 특유의 세로화면, 10분 이내의 길이 등 스마트폰에 적합한 영상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확한 예측이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화제가 됐던 틱톡의 ‘아무노래 챌린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무노래 챌린지’는 가수 지코가 신곡 ‘아무노래’를 발표하기 전 틱톡에 선보였던 댄스 챌린지로, 관련 영상이 조회수 8억 뷰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를 시작으로 틱톡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이전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 출처: SM Lounge)

틱톡은 중국 베이징의 바이트댄스사가 서비스하는 SNS 어플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틱톡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가 15초에서 1분가량으로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런 짧은 길이의 영상을 통틀어 ‘숏폼 콘텐츠’라고 부른다. 짧으면 몇 초, 길어도 15분 이내의 분량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담고 있는 영상은 모두 숏폼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숏폼 콘텐츠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동영상 소비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시장이 성숙하며 콘텐츠를 소비하기가 쉬워지면서 시간이 날 때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짧고 간결한 콘텐츠가 선호된다. ‘메조미디어 매거진’이 조사한 연령별 동영상 선호길이에 따르면, 10대는 13.3분, 20대는 13.0분, 30대는 15.3분으로 대체로 짧은 영상을 시청한다. 이렇게 숏폼 콘텐츠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해진 사회에서 소비자가 시간이 날 때 마다 시청하는 효율적인 소비 형태를 반영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트렌드가 된 숏폼 콘텐츠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담론형-하향식, 담론형-상향식, 대화형-상향식, 대화형-하향식 유형이 있다. 1) 담론형-하향식 유형은 숏폼의 구조에 맞게 기존의 롱폼 동영상 콘텐츠의 내용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웹드라마 ‘에이틴’과 ‘소녀의 세계’, 예능 ‘마포 멋쟁이’와 ‘오늘부터 운동동’ 등이 있다. 담론형-하향식 유형 같은 경우, 담론적 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공유되었기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던 롱폼 동영상 콘텐츠의 단점을 극복했다. 2) 담론형-상향식 유형은 영상 송신자가 소비자에

게 구조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담론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상향식으로 콘텐츠가 제작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한 채널에서 일상, 먹방, 게임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스트리머 콘텐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3) 대화형-하향식 유형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담론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과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형 구조를 사용하는 유형이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여러 SNS에서 진행되는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4) 대화형-상향식 유형은 틱톡같이 주로 동영상을 매개로 소셜 미디어 속에서 이용자끼리 대화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플랫폼은 유튜브와 틱톡이다. 와이즈앱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전했으며 지난해보다 20%의 사용량이 늘었다고 한다. 틱톡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0순위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보다 이용 시간이 15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틱톡 말고도 숏폼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전용 ‘블로그 모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사 ‘72초 TV’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다음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애혁명’ 같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며, KT는 자사 OTT(Over The Top) 서비스인 시즌에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한다. LG 유플러스는 숏폼 제작사 플레이리스트와 숏폼을 공동 제작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글 역시 지난 9월 최대 60초 길이를 지원하는 유튜브 숏츠를 선보였다. ‘유튜브 숏츠’는 현재 인도에서만 출시되었지만 지난 11월 구글이 특허청에 ‘유튜브 숏츠’와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선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하나둘씩 숏폼 콘텐츠/플랫폼 시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아, 숏폼 콘텐츠시장은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틱톡의 숏폼 콘텐츠는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 국내외의 숏폼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틱톡을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숏폼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숏폼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숏폼 플랫폼 로고(차레대로 유튜브숏츠, 카카오티비, 블로그 모먼트 출처: 네이버)

*참고 논문: 이진, (2020). 숏폼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 연구. 인문콘텐츠, (58), 121-139.

그들이 월가를 점령한 이유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을 외치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물어보면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기 일쑤이다. ‘전기 코드를 뽑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 그 이상의 친환경은 규모가 너무 커진다.



(이 기사는 특정 브랜드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파타고니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 소비 심리를 자극한 마케팅으로 확실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가 있다. 바로 파타고니아이다. 파타고니아는 그 자체로 친환경을 표방한다. 파타고니아의 철칙을 살펴보자. ‘Build the best product, cause no unnecessary harm, use business to inspire and implement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risis (최고의 상품을 만들자, 환경 오염을 창출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행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보이듯이,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환경친화 브랜드이다. 이 외에도 수익이 아닌 매출의 1%를 환경 단체에 기

부하며, 수많은 환경 보호 운동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브랜드의 마케팅은 가히 충격적이다. 모든 브랜드들이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자켓을 사지 마세요!” 입을 것이 새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단순한 충격 효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일까? 그것뿐만은 아니다. 파타고니아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체이지만, 이윤의 추구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 보호를 실행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보그)

그리고 그들은 ‘파타고니아’라는 새로운 붐을 일으켰다. 파타고니아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뉴욕 월가의 직장인들까지 매료시켰다. 기본적인 스타일에 ‘공존 가능한 친환경’이라는 자신들의 색채를 입혀, 전 연령층으로 파타고니아는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 파타고니아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냈을까? ‘의류 소비를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제품을 대중들이 원하게끔 했다. 그들의 혁신은 수많은 브랜드의 변혁을 이끌어냈고, 이제 의류 업계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환경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개개인의 실천을 통한 환경 운동과 동시에, 산업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올바른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브랜드 철학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패션 산업’과 ‘환경 보호’는 모순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더 이상 모순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 지향과 환경 보호가 함께할 때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올바른 경영 철학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소비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나은 소비를 할 수는 있다. 바로 ‘소비자’들이 오늘의 파타고니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더 나은 소비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11기 양아현 기자

코로나 시대와 MBTI 열풍

코로나 시대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리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MBTI이다. MBTI란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심리학자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는 시행이 쉽고 일반인 역시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다.

MBTI 검사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총 4가지이다. 개인의 성격적인, 정신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내향(I)-외향(E) 지표,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직관(N)-감각(S) 지표,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T)-감정(F) 지표,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판단(J)-인식(P) 지표가 그것이다. 이 4가지 지표 각각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검사자의 유형으로 삼아,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알파벳 4개를 묶어 순서대로 INTJ, ESFP와 같이 성격 유형을 표시하여, 총 16가지의 유형이 있다.

외향-내향 지표는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관심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를 나타낸다. 4가지 지표 중 가장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부와 다른 사람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며,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내적 활동을 중요시한다.

직관-감각 지표는 사람 및 사물, 주변 환경을 인식할 때 어떤 사고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직관 지표의 뜻은 감각형의 사람은 물론이며 직관형 사람까지도 경우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감각형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에 보다 집중하며, 오감을 사용한 인식 기능이 비교적 발달해 있다. 이와 반대로 직관형의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문제의 면의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오감보다는 육감에 의존하는 편이 있다.

사고-감정 지표는 인식 기능으로 수집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가에 관련한 지표이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고 비판적이다. 반면 감정형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상황적인 맥락을 중시하며,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판단-인식 지표는 실생활에서의 모습과 관련이 많다. 판단형의 사람들은 목적 의식이 강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성향이 있다. 인식형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

로 활동하며, 모험이나 변화를 추구한다.



(출처:16 personalities)

MBTI는 기존에도 역시 대중적인 심리 유형 검사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실내, 즉 개인 공간(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 및 각종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MBTI 열풍이 불어온 것으로 보인다. 심리 유형 검사는 간단하게 자신의 성격을 재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MBTI가 꾸준히 재미있는 문화의 일종으로서 자리할 것이다.

10기 김민서B 기자

새로운 황색언론, 사이버 렉카



출처: 픽플러스

견인차, 일명 '렉카 (wrecker)'는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견인할 때 사용되는 특수차량이다. 정비소, 보험사 혹은 견인업체는 사설 견인차를 운용하며 견인이 필요한 차를 견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사설 견인차는 무분별하게 견인을 진행하고, 견인을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점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설 견인차에 빚대어 비판받는 사회현상이 있다. 바로 '사이버 렉카'이다.

최근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한 후 그의 자택 앞에 영상 촬영, 실시간 중계를 위해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던 사건이 벌어지며 '사이버 렉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유명인과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가십을 즐겼다. 편향적, 자극적이고 사실관계보다 흥미 위주의 기사를 주로 발행하는 황색언론은 19세기 후반 탄생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 인터넷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성장으로 정보의 생산이 더욱더 쉬워지면서 황색언론의 역할은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에 넘어가게 되었다. 황색언론의 행적을 그대로 넘겨받은 이들은 대중의 흥미를 끌 만한 정치인, 연예인, 유명 인물 루머의 소문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대 및 재생산하며 공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책임으로부터 회피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렉카'라는 멸칭으로 불린다.

다는 점에서 '사이버 렉카'라는 멸칭으로 불린다.

'사이버 렉카'에 의한 피해는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조두순 자택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들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고인이 된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고인을 모욕하거나, 특정 유명인의 사생활을 캐 영상으로 폭로했다가 해당 피해자의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그마저도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때이다.

10기 최종엽 기자

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

- 국가의 우선 책무는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유럽 국가들 중 두드러지는 코로나 19 증가세를 보이는 스웨덴은 현재 강력한 봉쇄(lockdown) 조치를 펼치고 있다.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스웨덴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79,913명, 사망자 수는 834명으로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각각 14,254명, 272명인 사실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 봉쇄 조치, 거리두기 강화와 같은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아무런 강제적 조치 없이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만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 초기 느슨한 방역 정책을 택한 스웨덴이 현재 강력한 봉쇄(lockdown)를 펼치는 배경은 '집단 면역(herd immunity)' 실험의 실패에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시기에, 스웨덴 정부는 집단 구성원의 다수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항체가 생겨 집단 전체가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놓이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면서 방역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 스웨덴 정부는 느슨한 방역 조치가 집단면역을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스웨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8월 12일 스웨덴의 코로나 19 대응을 총괄하는 감염병학자 안데르스 텅넬이 정부 당국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집단면역'을 이유로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 국민의 50% 이상에서 항체가 생성될 것이라는 스웨덴 당국의 기대와 달리 스웨덴 전 국민의 항체 생성률은 25%에 불과하였다. 결국 9월 말 이후 스웨덴 내의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사망이 급증하면서 '집단면역'을 이유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한 스웨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2월 초까지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북유럽 국가들 중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자 스웨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집단면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이후 스웨덴 방역 당국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집단면역을 목표로 개개인에게 코로나 19 방역의 책임을 맡기는 스웨덴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공공력이 개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스웨덴 사회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일정 이상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스웨덴의 방역 정책은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고려한 스웨덴 당국도 코로나 19 확산의 피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달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코로나 19 시기 개개인의 자유, 사생활과 같은 가치가 국민들의 생명권과 충돌되는 가운데 국가의 우선 책무가 전자보다 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10기 김재훈 기자

통계를 경계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계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무게를 실는다. 어디 가서 신뢰도 있는 통계 결과를 내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도 같이 신뢰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통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통계는 표본의 구성, 조사 방법, 조사 기간에 따라 무궁무진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며 통계의 해석은 엇장수 마음대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8년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경우이다. 통계청은 2017년의 동 분기에 대비하여 2018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총소득이 7.0~17.7%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9.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래 정부가 펼쳐온 소득주도정책의 결과가 소득 양극화라는 결과가 통계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반대 여론을 펼쳐왔던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야당은 이 통계 결과를 근거로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 자료만으로 소득주도정책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그 두 가지 이유를 내놓았다. 첫째, 2016~2018년 사이에 표본수와 표본구성에서 큰 변동이 생겼으며 둘째,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표본을 추출하는 *인구센서스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초 위 자료는 표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노년층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조사 표본에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본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7년도의 통계와 연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정책의 반대여론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행태가 되었다. 결국 기존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은 교체되기까지 이르렀다.



(출처: 한국경제)

위 사례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고평가하는 데에 쓰이는 통계 자료가 있다. 바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인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로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여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부동산원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어떤 통계적 오

류였을까. 일단 한국부동산원의 표본 수는 정말 턱없이 적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부동산에 대한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데, 표본은 9400가구에 불과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원의 주간과 월간 통계 괴리도 매우 심각하다.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0년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0.01~0.02%씩 상승했다. 즉, 한달 간 0.05~0.06%가 상승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한 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조사의 경우 표본구성을 아파트로만 하지만 월간 조사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한다. 통계청은 이에 표본을 같게 설계하는 방식 등으로 주간 조사와 월간 조사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권고했다. 이러한 통계적 오류에 신뢰도를 잃은 국민들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민간 기관이 집계하는 통계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년 5월) 때에 비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2%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무려 36.6%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잘못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집값 안정화를 운운하는 동안 국민들은 실세 없이 높아지는 집값에 등골이 휘어갔다.

우리는 통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에서 쓰이는 왜곡되는 통계 자료들, 뉴스와 기사에서 도보 되는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통계 자체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현대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어쩌면 통계가 빅브라더의 손에 들어가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통계를 경계해야 한다.

*인구센서스 : 예전에, 한 나라의 인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한 전국적인 인구 조사.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로 용어가 바뀌었다.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가 식탁 위에?

올해 11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미국 기업 잇저스트(Eat Just)가 세포 배양을 통해 만든 닭고기 시판이 승인되었다. 배양육은 과거부터 식량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써 각광 받아 왔다. 현재도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배양육이란 세포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영양분을 제공하여 실험실에서 키워낸 고기이다. 기존의 콩단백질이나 밀단백질 등을 이용해 고기의 모양을 만들었던 식물성 인조고기와는 다르게 실제 동물의 유전자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이들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배양육의 장점

배양육이 상용화될 경우 직접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의 면적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UN 식량농업기구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축산물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현재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매년 2억 톤의 이상의 육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 면적 역시 그만큼 더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배양육은 가축 사육 방식보다 에너지 사용량은 7~45%, 온실가스 배출량은 78~96%, 토지 사용면적은 82~96% 줄일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배양육은 환경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성에도 역시 뛰어난 장점을 보인다. 추가적인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나 합성 호르몬 등과 같이 좋지 않은 성분들이 검출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중간 유통 과정도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축을 길러 고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건강한 가축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의 질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양육의 단점

긍정적인 면만 있을 것 같지만 배양육에도 명백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배양 닭고기 시판을 허용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축산업을 대체할 정도의 완벽한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어느 업체도 대규모 상업용 배양육을 만들고 있지 않아 생산 시설은 여전히 소규모의 실험용일 뿐이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배양육 제조회사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높은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성장을 위해 항생제나 다른 약품 처리가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전성 또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배양액으로 말이나 소의 태아 혈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임신우를 도축하는 과정이 포함되면서 결국 배양육 생산을 위해서는 가축을 도축해

야한다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배양육이 내세우고 있는 이점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배양육의 전망



(출처: 서울신문)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유럽 배양육 산업은 꾸준한 성장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유럽의회가 사상 최초로 배양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결정했다. 스페인 기업 바이오테크푸즈가 주축이 되어 진행중인 '미트포올(Meat4All)' 배양육 개발 프로젝트에 270만 유로(약 37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기업 오르가노테크니(Organotechnie)도 참여하는데, 2022년 7월까지 배양육을 시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 미트테크는 벨기에 국적의 지방 배양 전문 스타트업 피스오브미트(Peace of Meat)를 인수·합병했다. 이미 상장기업인 미트테크는, 피스오브미트 인수를 통해 기술력과 생산력을 향상시켜 배양육 시장 장악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배양육뿐만 아니라 식물 기반 단백질과 배양육을 섞은 '하이브리드 음식' 카테고리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반면 2018년 12월 세계 최초로 세포로 만든 스테이크를 공개한 이스라엘의 알레프팜스는 배양육으로 우주 식량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3차원(3D) 바이오프린터를 이용해 세포를 작은 근육 조직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올해 10월에는 '알레프 제로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달이나 화성에 세포로 배양육을 생산하는 '우주 바이오팜'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배양육을 상용화, 더하여 분야를 넓혀가려는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화 문제는 물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식탁에 배양육이 올라오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모기로 전염병을 예방하다: 올바키아 박테리아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동·서 아프리카와 열대지방 등에서 말라리아와 함께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뎡기열(Dengue)**은 뎡기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말라리아가 거의 퇴치된 싱가포르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뎡기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0만 명의 발병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중의 22,00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 뚜렷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뎡기열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요법만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이 질병을 반대로 모기를 이용해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2020년 초, 스코트 오닐 박사는 <감염병 예방 모기 전파>_Mozzie counter attack_라는 프로젝트의 경과를 발표하며 전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내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뎡기열의 주요 감염경로는 매개 모기가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문 뒤 다른 숙주를 물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수직 감염이다. 확실한 치료제나 예방제도 없어, 모기 기피제나 해충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기를 피하는 방법만이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려져 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모기 박멸’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기를 이용하여 해결할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스코트 오닐 박사의 연구 목표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모기를 개발하고 이를 야생에 전파하여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모기”란 바로 ‘올바키아’ 박테리아를 주입한 박테리아를 말한다.



(출처: Nature)

‘올바키아’ 박테리아는 곤충 세포 내에 기생하며 생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세균으로, 세포 안에서 영양분, 효소 등을 차지하고 서식하며 암수 결정, 개체 발생, 수명 등의 생리적 현상을 조절하는 박테리아이다. 만약 상이한 올바키아 균주에 감염된 모기를 끼리 짝짓기를 하게 되면 암컷은 알을 낳더라도 잘

못 발육하여 부화하지 못하는, ‘생존 불가능한 알’, 쉽게 말해 ‘쪽정이 알’을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보면 모기의 개체 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모기의 멸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살충제가 아닌, 살아 있는 살충제 ‘올바키아’ 박테리아를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시도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연구진들이 수컷 모기의 생식 능력을 감소시키고, 올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되게 한 후 야생에 방사하여 야생 모기들과 짝짓기를 하여 감염된 모기를 확산시켜 효과를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WHP연구진은 호주 퀸즐랜드에서 올바키아 감염 모기의 전파로 뎡기열 전염이 9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올바키아를 이용한 연구의 등장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태평양 지역의 섬들이 모기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11기 박은수 기자

알파폴드,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하다.

2020년 11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 2’가 세계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CASP)에서 평균 92.4점의 최고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딥마인드(DeepMind)의 구조생물학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한 알파폴드(AlphaFold)는 방대한 게놈 데이터를 사용하여 3D 단백질 모델을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생물학계의 큰 난제였던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알파폴드 (출처:딥마인드)

‘단백질 접힘 문제’란 단백질 구성 서열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아미노산 사슬이 어떻게 3차원적인 구조로 접힐지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아미노산의 집합체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유형과 수에 따라 말리거나 접히면서 고유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형태는 단백질이 인체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결정한다. 따라서 특정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로 접

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백질의 구조는 저온 전자 현미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수반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활용해 단백질 접힘을 예측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사슬이 서로 접히면서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유전 정보만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마인드는 딥러닝에 기반한 강화 학습을 이용해 인접한 아미노산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 단백질이 어떻게 접힐지 예측하는 AI를 개발하였다. DNA 유전 정보와 이미 실험을 통해 확인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정보 등 약 17만 개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미노산 쌍 사이의 거리와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화학 결합 간의 각도의 확률 값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물리적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 구조 생물학 기술을 바탕으로 전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자생물학에서 단백질의 구조는 곧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알파폴드의 발견은 유전병을 치료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간 유전체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고 개인마다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단백질의 화학 조성을 보고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단백질의 역할과 잘못 접혀 문제가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형태와 작용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함에 따라 신약 발견 및 실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수백만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만 주변 단백질에 영향을 받는 단백질, 즉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알파폴드로 구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11기 김나연 기자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가 1932년 8월 9일 유언으로 47000달러를 필즈상에 기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필즈상은 IMU에서 개최하는 ICM에서 수상되며, 수상 조건은 만 40세 미만에서 2~4명가량 수상된다. 1936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처음 개최되어 핀란드 출신의 라르스 알포르스와 미국 출신의 제시 더글러스가 최초로 수상한 이후, 세계 대전 중인 이유로, 수상을 멈췄다가, 1950년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다시 수여하며, 4년에 한 번씩 수여되고 있다.

“while it was in recognition of work already done, it was at the same time intended to be an encouragement for further achievement on the part of the recipients and a stimulus to renewed effort on the part of others.”

존 찰스 필즈는 위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이는 수학자의 업적을 기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이 필즈상의 수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수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존 찰스 필즈의 유언에 따라 업적이 매우 뛰어난 이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그 예시로는 몇백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를 증명하여 유명한 앤드류 와일즈가 있다. 앤드류 와일즈는 만 40세를 넘는 45세의 나이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업적으로 필즈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경우였고, 필즈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고도 수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수상하지 못한 수학자들이 많다. 이런 수상 조건은 1966년에 수상자가 과거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연구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는 내용의 필즈가 남긴 메모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연구를 격려한다는 사유로 시행되었고 필즈의 메모를 과대 해석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99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필즈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수학자 예핌 젤마노프는 “젊은 나이에 필즈상을 받으면 최고의 수학자로 40년을 대우받는다.”라고 했다. 그만큼 필즈상은 수학자들의 명예 상징이자, 권위이다. 그러나 이런 수학자로서의 성공을 상징하는 필즈상 수상을 거부한 경우가 있다. 2006년 그리고리 페렐만은 클레이 연구소에서 한 문제 당 100만 달러를 제시한 수학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앵카레의 예측을 증명하여 정식으로 필즈상 수상이 결정되었지만,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금 100만 달러 또한 받지 않았다. 지인의 인터뷰에 따른 페렐만의 수상 거부 이유는 올바르게 못한 수학계의 권위와 인맥을 지닌 이들의 말만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11기 이람윤 기자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 걸 못 알아챈다고?

TV 프로그램 <런닝맨> 출연자인 개그맨 지석진은 눈치 없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있다. 그의 눈치 없는 모습들을 모아놓은 영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병원에서 검진표를 작성하는 중 앞에 있던 의사가 수차례 바뀌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석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재밌어하기도, 신기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알고 보면 매우 흔한 현상이다.

시각적 자극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관찰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현상을 ‘변화맹(Change Blindn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실험 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실험 심리학자 대니얼 사이먼스 연구진이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위치를 묻고, 상대가 길을 설명하는 도중 문짝을 운반하는 두 남자가 돌 사이를 지나가면서 대화를 방해하는 동시에 문짝을 옮기던 남자 한 명(두 번째 실험자)과 첫 번째 실험자가 역할을 바꾸었다. 실험대상자가 도서관의

위치에 다 알려주면 실험자는 문짝이 운반될 때 이상한 점이 없었냐고 물었다. 실험대상자는 총 15명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부분 운반꾼들이 무례했다고 대답하면서도 절반 이상(8명)이 대화 상대가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작동 기억(working memory)과 눈의 움직임과 큰 관련이 있다. 복잡한 시각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모든 자극을 사진처럼 찍어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요점을 파악한다. 위 실험에서는 ‘길을 알려주는 것’에 실험대상자의 작동 기억이 대부분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눈의 움직임과 관련해 설명하자면, 눈 운동 조절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인 상구(superior colliculus)는 오직 변화가 순서적으로 감지되었을 때만 전기적으로 자극된다. 즉, 시각적인 변화의 과정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변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 실험을 설명하자 자신이라면 분명히 알아챌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를 ‘변화 맹시’에 대한 맹시’라고 한다. 이 글을 읽고도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를 못 알아채겠어?’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영상 또는 링크에서 직접 자신의 지각 능력을 테스트해보길 바란다. 생각보다 다른 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Test Your Awareness : Whodun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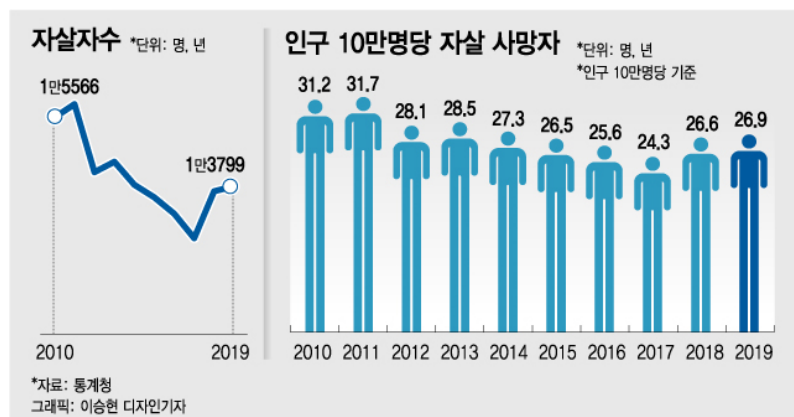
https://www.lenstore.co.uk/vc/spot-the-difference/?utm_source=affiliate_window&utm_medium=affiliates&utm_campaign=Skimlinks (Spot the Difference)



▲변화맹실험 사진 (출처:네셔널지오그래픽)

10기 박소연 기자

자살 위험 유전자 22개를 발견하다



(출처: 머니투데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 5110명으로 1년 전보다 3710명(-1.2%) 줄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오히려 늘어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는 1만 3799명으로 2018년 대비 129명(0.9%) 늘었다. 미국인도 매 11분마다 한 명씩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다. 하루 132명, 연간 4만 8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유타 보건대학 헌츠먼 정신 건강 연구소(Huntsman Mental Health Institute) 연구원들은 자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러한 사망에 역할을 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가장 많은 표본을 동원한 연구로서, 게놈 차원의 종합적인 첫 번째 분석 연구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또한 조울증, 정신분열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 질환과 행동과의 중요한 유전적 상호 연관성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이 연구가 자살 사망이 부분적으로 유전될 수 있으며, 환경과는 무관하게 가족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들은 이러한 유전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면, 잠재적인 자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예측해서 이를 방지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더 나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안나 R 도처티(Anna R. Docherty) 교수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게놈을 사용하여 연구실에서 환자-대조군 상태를 예측하는 자살에 대한 유전적 위험 점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타보건대학 연구팀은 고위험군 43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4개를 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유전적 자살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는 인간 게놈의 특정 유전적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도처티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자살에 잠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유타주 의료 검사국으로부터 얻은 3413개의 샘플에서 수백만 개의 DNA 변형을 분석하였다. 이는 자살 사망 표본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전 유전자 연구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이 샘플들은 자살로 죽지 않은 조상을 가진 1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DNA와 비교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샘플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을 조사하였다.

전장유전체 연관성 분석(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을 이용해 연구자들은 SNPs로 알려진 유전자 변형을 분석했다. 이 수백만 개의 SNP는 4개의 염색체에 위치한 자살 사망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22개의 유전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팀은 이어 수백만 개의 SNP를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해서 점수화했다. 도처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개인의 자살에 대한 생물학적 위험을 계량화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정신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렸다.



(출처: 사이언스타임즈)

물론 이러한 연구에는 항상 한계가 뒤따른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유전학은 자살로 죽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레이 교수는 자살로 인한 죽음은 일반적으로 연쇄적인 사건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치료되지 않았거나 덜 치료받은 정신질환, 약물 남용, 뇌질환, 충기 가용성, 이별의 상처와 같은 최종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되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연구들은 자살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우리들을 위한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수평이 아닌 수직의 담론이다

독자들을 위한 당부 첫 번째.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두 번째.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약 2,000자의 분량에 걸쳐 대략 설명드릴 요량이니 흥분하지 마시라. 화내지 마시라. 세 번째. 가능하다면,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페미니즘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도 따르고 있는 모양이다. 가장 큰 것은 양성갈등(혹은 경우에 따라, ‘혐오’)이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는 필자는 최근 들어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담은 게시물 대부분을 못 본 척 지나치고 있다. 처참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댓글창을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소모적인 피로감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 대두된 페미니즘은 이제 새로운 싸움의 출발점이 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시사IN> 천관울 기자와 한국리서치 정한울 디자이너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58.6%가 페미니즘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2019년 3월 한국리서치 조사).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나이대 여성의 21.3%만이 페미니즘에 강경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관울 기자는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20대 여자들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20대 남자들은 그 반작용으로 반페미니스트가 되었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양성대결’로 정의하는 갈등현상은 대부분 젊은 남성들의 분노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해답을 찾는 게 핵심이다. 나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자기부정’의 감각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힘들다. 모두가 학벌주의와 청년실업 등에 고통 받고 있다. 여자든 남자든, 청년 세대 거의 모두는 사회적 패배자다. 따라서 젊은 남성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남자’가 아닌 ‘청년’으로 봐야 한다. 그들은 성별이 부여한 **기득권**을 체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오직 세대적 차원에서 고통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우위의 사회 구조를 인정하라”라는 페미니즘의 요구는 젊은 남성에게 “너 스스로를 부정하라”라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 세대 정체성이 성별 정체성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을 남성으로서만 정체화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페미니즘을 수평적인 담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페미니즘의 본질을 ‘남자라는 집단에 대한 여자라는 집단의 (수평적) 투쟁’으로 정의한다면, 양성의 분열 이외에 다른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사실 수직적 담론에 가깝다. 페미니스트가

BECAUSE NEITHER OF US



CAN DO IT ALONE

(출처: Mibba)

싸워야 할 대상은 ‘얼굴과 이름을 가진 특정한 집단의 인간들’이 아닌 성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제거해야 할 구체적 대상이 있다면 그 구조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회기득권들이 유일할 것이다. 그들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젊은 남녀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이어야 하며, 수직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투쟁의 대상이 상위 계급 혹은 계급적 구조 자체라면, 그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모두는 단일한 집단인 것이다. 페미니즘은 수평이 아닌 수직의 담론이고, 성별이 아닌 세대와 계급의 담론이다.

여성차별은 현실이다. 취업전문사이트 ‘사람인’이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가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그 중 84.3%가 남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업의 경우를 조사해보니, ‘구직자의 성별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60.7%)의 68.4%가 남성 구직자를 더 선호했다(김강한, <조선일보>, 2020.9.17).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남성 임원은 여성 임원에 비해 그 수가 7.3배 더 많다고 한다(김민주, <아웃소싱타임스>, 2020.8.14.).

이 차별적 현실은 여성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사회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해야 한다. 남성은 성별이 아닌 계급과 세대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득권 세계의 명백한 성차별적 경향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수직적 차원에서 합일된 하나의 ‘하위’ 집단으로서 부당함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

어렵게 그 목소리를 키운 페미니즘을 새로운 분열의 하나로 흘려버리기엔 너무나 안타깝다. 까놓고 말해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본적인 투쟁의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념은 그렇게 흔치 않다. 우리끼리의 분열은 부조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보면 좋지 않겠나.

E스포츠도 스포츠인가?



▲ 오버워치 리그 2018 그랜드 파이널(출처:네이버 뉴스)

게임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오로지 오락의 용도로 재미를 느끼기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의 공부나 성공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였다. 어렸을 때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게임을 하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게임 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장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e스포츠의 시작과 발전,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자.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 변화의 시작은 1998년에 출시한 블리자드의 작품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 전략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게임의 가장 큰 업적은 PC방 문화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 시기 한국의 가정에는 막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덩달아 최고의 멀티플레이 환경(배틀넷)을 공짜로 제공한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덕분에 PC방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PC방이 많아지며 사람들은 게임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다른 오락거리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업적은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에 열광한 한국인들은 e스포츠라는 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한국에도 도입하였다. 사람들은 점차 e스포츠에 열광했고, 이는 ‘e스포츠’라는 문화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모아 대회를 진행했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프로 게이머’라 불리며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0년대에는 게임의 인기가 점차 떨어지며 대회도 사라졌고, ‘프로 게이머’가 다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대중화된 게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려는 이 게임에 의해 사라졌고 e스포츠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이다. 2011년에 출시한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앞글자를 딴 ‘LOL’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는 등 많은 인기를 누리며 발전했다. 이후 오버워치, 배

틀그라운드 등의 게임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대회와 팀을 만들며 각 기업의 지원 또한 이어졌고, 대회 하나를 진행하려면 큰 축구장이나 체육관 정도의 공간은 필수가 되었다. 이제는 e스포츠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팀을 지지하는 팬덤이 생기고 경기장에 가서 대회를 관람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경기를 보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다른 스포츠와의 차이가 없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e스포츠는 2018년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도입이 되는 것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국가 간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OL뿐만 아니라 펜타스톤, 스타2, 하스스톤, 클래시로얌, PES 2018이 e스포츠 종목 안에 포함되었다. 예전부터 e스포츠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 대회 LOL 부문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아쉽게도 중국에 이은 은메달을 땀다. 이와 같은 사례에 이제는 올림픽 종목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선택 종목이 신설됨과 함께 프랑스 정부는 e스포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고, IOC에서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e스포츠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다. 당장 2022년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종목에서 e스포츠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며 ‘꽃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되었던 e스포츠는 국제 연맹의 부재, 폭력과 차별의 조장 등의 이유로 제외가 되었다. e스포츠의 상황이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위와 같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e스포츠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출정식 (출처: 네이버 뉴스)

하나고 10주년 기념 축전

1.

하나고는
나에게 있어서
고마운 존재이다
-10기 양희창

2.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학교
나를 키워주는 학교
고등학교의 넘버원 하나고 파이팅!
-익명의 응모자

3.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맘에 드는
고등학교
-10기 최민준

4.

하나고
나와서
고려대
-10기 양정호

국문신문부와 함께하는 십자말 풀이

1		1				4	7			
		2							5	
					6					
	3		2							
3										
										10
		8		4		7	9			
9										
							11			
			8							
	10									

가로말

- 하나고등학교 체육관 이름.
- 암석의 파편이나 생물의 유해 따위가 땅 표면에 쌓인 물질.
- ①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
② 생태계에서 독립영양 생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는 생물체.
- 물질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이 만들어지는 일.
- 글을 소리 내어 읽음. (반의어 : 묵독)
-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접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하나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 60간지의 38번째 해로, 2021년이 해당됨.
- 13면 10기 김동건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 9면 11기 박유니아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 ①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②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정한 상태.

세로말

- 동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이리저리 쓰러짐을 이르는 말.
-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 8면 10기 김민지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 남을 지워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11면 11기 이람운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 당해 내기 어렵다.
- 대한민국의 고유한 옷. 특히 조선시대에 입던 형태의 옷을 이르는 말.
- 하나고등학교의 기숙사 이름.
- 5면 10기 김도이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하다.
- 10면 11기 박은수 기자의 기사 속 초록색 글씨.

*십자말 풀이를 맞추신 2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선착순)

*동장 김도이에게 본인이 풀이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동장의 이메일은 신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공모작: ㅇㅇㅇ 학생 제공

세계가 나를 키운다. 내가 세계를 키운다.

국문신문부 명단

- 창체: 김도이, 김동건, 김민지, 김성종, 박승환, 박유니아, 박은수, 이람윤
- 자율: 김민서B, 김재훈, 박소연, 임예원, 정나영, 최종엽, 김나연, 박규선, 박미솔, 박현경. 왕현민, 양아현, 최시우, 허예은, 홍연수

당신이 사회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하나신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문의: 국문신문부 동아리장 10기 김도이 (Email : wccemma@naver.com)

하나고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법인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9.12.17. ~ 2020.8.6.)

- 하나생명보험㈜
- (주)하나자산신탁
- 하나캐피탈㈜
- 하나카드㈜
- (재)정현재단
- 8기 학부모회
- 김용균님
- 정철화님
- 하나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9.12.17. ~ 2020.8.6.)

- 하나카드㈜

▶ 하나고등학교 후원 안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후원은 자라나는 인재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반듯한 인성과 친기업 정서를 지닌 건전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교법인사무국(02-6913-1100, 110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Hana Academy Seoul